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버 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주 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03045)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 화 02-3704-3114 홈페이지 www.nfm.go.kr



이용안내

개관 및 관람 시간

03~05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06~08월	09:00-18:30	17:30까지 입장
09~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11~0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05~08월 주말·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야간개장 매달 마지막 수요일	09:00-21:00	20:00까지 입장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공연접수 공고는 4~5월과 9~10월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1월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Janurary , Every Saturday 3:00pm, Museum Auditorium 2016년 1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제929회

호연과 함께하는 국악프린지 페스티벌

Gugak Fringe Festival with Hoyeon

1.02.



제930회

이부산류 설장고 "스승과 제자가 함께 걷는 길"

Lee Busan style of Seoljanggo 'Ensemble stage with his disciples' $1. \ \ 09.$



제931회

Healing Concert - 라온제나

Healing Concert - Raonjena

1.16.



제932회

류영수의 춤의 빛깔

Colorful Dance by Ryuyoungsoo

1. 23.



제933회

the+미소 흥+흥 콘서트

The+smile Heung+Heung Music Concert

1.30.

※공연일자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above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공연료는 무료입니다. Free Admission

January 2016

January 2016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단 호연의 국악프린지 페스티벌 무대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표전 국악을 선보인다.

국악이 '재미없고 지루하다' 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세계인 모두가 우수한 국악, 즐거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본 무대를 준비하였다. 전통예술단 호연은 국악, 전통연희의 기본에 충실하여 내용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쉽게 풀어내어 한국적인 이야기와 현대감각에 맞는 작품구성으로 보고, 듣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연이다.

첫 무대는 비트박스와 비보이의 마임으로 다양한 타악연주가 함께하는 'SOUL WIND'를 선보인다. 이어서 전통사물놀이와 현대음악의 만남 Fun&Good, 비트박스와 태평소의 협연 '날라리 판', 비보이의 화려한 춤 '비보이 뱅뱅', 마지막으로 흥겨운 가락과 웅장한 북소리의 모듬북 합주 '공명'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The theme of "Gugak Fringe Festival", the traditional art performance company, Hoyeon will prepare Fusion-GugaK for merriment and communication with audience. Especially, the group biases against the idea of 'Gugak is boring and old fashioned music'. Hoyeon, based on korean traditional music Gugak, help approached Korean classical music more accessible to general public by combing korean tradition and contemporary music in balancing way.

The first stage, 'SOUL WIND' will performed beatbox and motion of B-boy dancers with percussion performance. The following 'Fun & Good' is traditional play, Samulnori in balancing with modern music, amazing break dance by 'B-boy baeong-baeong'. The last stage kicks off with assorted drums ensemble 'Gongmyeong' by playing the different sizes to delivering excitement to finalized the entire program.

공연순서 PROGRAM

- 01 SOUL WIND SOUL WIND
- 02 Fun&Good Fun & Good
- 03 날라리 판 Nalnari Pan
- 04 비보이 '뱅뱅' B-boy Dance "Baengbaeng"
- 05 모듬북 합주 '공명' Drums ensemble "Gongmyeong"



대표 이찬행(전통예술단 호연대표)

출연 김기현, 조영준, 김진미, 박세호, 최동현, 조영두, 최보근, 이용준, 서창훈, 김종완, 지수진, 이재광, 김진웅



이번 공연은 설장고 명인 이부산의 예술인생을 기념하며 그의 제자들과 함께 꾸미는 무대이다. 설장고가 대표되는 전통연희를 다양하게 표현하여 2016년 병신년(丙申年)을 맞이하여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공연을 준비하였다

첫 무대는 사물놀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노래와 타악의 연주 운우풍뢰 곡으로 시작하여 제자들과 함께 울리는 우도 설장고 대합주, 이부산 명인의 자제 이순임을 주축으로 한 남도민요, 스승과 함께 걷는 길을 주제로 한 풍물판굿과 설장고 합동 공연, 관객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강강 술래가 연이어 펼쳐진다.

Lee Busan, a master of Seoljanggo and his disciples will performed to commemorate Lee's artistic life. The program consists of various style of Seoljanggo performance, the audience to greet a 2016 new year of the monkey. The opening of the stage is 'Samulnori Unwupunglloe', which unprecedented style of samulnori with percussion performance. 'Udoseoljanggo Ensemble' played with Lee Busan's disciples, 'Namdominyo' performed by his son, Lee Soonim. Under the theme of 'Ensemble stage with his disciples', performed 'Pungmul Pangut' and 'Seoljanggo Ensemble' by Lee Busan and his disciples. Finally, 'Gangganngsulrae' will bring performers and audiences together.



공연순서 PROGRAM

- 01 시물놀이 '운우풍뢰' Samulnori 'Unwupunglloe'
- 02 이부산류 우도 설장고 대합주 Lee Busan style 'Udoseoljanggo Ensemble'
- 03 남도민요 Namdominyo
- 04 풍물판굿 '스승과 제자가 함께 걷는 길' Pungmul Pangut 'Ensemble stage with Lee Busan and his disciples'
- 05 설장고 이부산 Lee Busan's Seoljanggo solo performance
- 06 강강술래 Ganggangsullae



대표 이부산(경기도립 국악단 지도위원)

출연 권준성, 장지성, 박지웅, 조용성, 최동환, 김윤만, 김지수, 이순임, 김유나, 최련, 김다슬



이번 공연은 순 우리말의 어원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공연으로 수준 높은 정적인 음악들을 준비 하였다

첫 무대는 한오백년을 주제로 다양한 악기들의 조화로운 음색을 살려 삶에 대한 여유로움 전달하는 '메나리'를 선보인다. 이어서 대금과 하모니카연주로 영화 '워낭소리'OST인 'Missing', 노랫가락을 편곡하여 몸짓과 음악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예그리나 - 사랑을 노래하다'다산 정약용의 시 '독소'를 주제로 웃음을 전달하는 '하하호호-함께 웃자!', 무용과 시나위연주가 하나 되는 '하나린어질게 살아가다' 태평소와 타악기 그리고 북춤이 어우러지는 '온새미로-자연 그대로...'

미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불러보는 몽금포타령까지 본 무대는 아름다운 노래와 춤 신명나는 대동 놀이 한마당으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며,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을 선사할 것이다

Raonjena prepares 'Healing Concert' to understand the root of korean language with series of elegant music rather than dynamic. 'Menari' open the stage, under the title of 'Hanobaeknyeon (about five hundred years)' harmonized melodies played by various types of music instruments. The following is 'Old partners OST-Missing' performed with Daegeum and Harmonica. 'Yegeumina-singing of love' arranged the lyrics into motion and music for expressing of love. 'Hahahoho-laughing together' delivered a message poem of Jeongyakyong's poison to the audience, 'Hanarin-living in wisdom' playing sinawi with dance movement accompaniment, 'Onsemiro-living in nature' played together with Tapyeongso, percussion and drum dance in sequence. The final stage 'Monggeumpo Taryeong' shows with mirth and pleasure of korean music, becoming rest place for those who visiting museum with stress caused by modern life style and relationship. The audiences will deeply impressed and appreciate the stage.

공연순서 PROGRAM

- 01 intro 메나리 Intro-Menari
- 02 Missing Missing
- 03 예그리나 사랑을 노래하다 Yegeurina-singing of love
- 04 하하호호 함께 웃자! Hahahoho-laughing together
- 05 하나린 어질게 살아가다 Hanarin-living in wisdom
- 06 온새미로 자연 그대로... Onsemiro-living in nature
- 07 몽금포타령 Monggeumpo Taryeong



대표 이진용(서울지방문화재 제25호 판소리고법 전수자) 출연 허 훈, 설호종, 김영정, 장현아, 서준웅, 이송희, 김인숙, 주해리



제932회 토요상설공연 The 932nd Saturday Performance

류영수의 불깔

Colorful Dance by Ryuyongsoo

2016.1.23.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故 우봉 이매방의 춤과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류영수의 춤의 빛깔의 주제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매방류 전통무용과 류영수의 창작무용의 색채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구성하였다

첫 무대는 판소리 춘향가 중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한 '사랑가'를 선보인다. 이어서 춘향이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하고 옥에 갇혀 이몽룡을 그리며 춤으로 표현한 '쑥대머리', 노 총각의 신세를 한탄하며 한풀이와 흥풀이를 춤으로 나타낸 '초립동', 전통의 계보를 잇는 춤으로 정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입춤, 민속적 색채미가 느껴지는 무당춤, 한국인의 한(恨)과 신명을 단아한 멋으로 풀어내는 '살풀이춤', 빼어난 북가락과 장삼놀음이 돋보이는 승무, 마지막으로 여인의 흥취를 느낄 수 있는 '진도북춤'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This show presents under the title of 'Colorful dance by Ryu Youngsoo', who is carrying on the late Yi Maebang's style of Korean dance and his spirit. He comprises of variety pieces of Yi Maebang's traditional style and Ryu's creative dance movement.

'Sarang-ga(love song)' lifts the curtain, which is a love story dance of Chunhyang and Lee Mongryong, 'Ssukdaemeori(Disheveled Hair)'from Pansori chunyangga depicting how chunghyang missed her lover Lee Mongryong even if she were put in jail, 'Choripdong' depicts sorrowful feeling of old groom, 'lpchum' basically practiced as one of the standard traditional dances, 'Mudangchum' expressed beauty of folk culture, 'Salpurichum', emotion of Korean, Han and beauty of moderation that goes with delicate and gorgeous melody and 'Seungmu' a perfect art from that sums up all techniques of folk dance, especially the Buddhist monk's play and drum dance.

Lastly performed is 'Jindobukchum', that will show gorgeos dances of performers holding drums in their frontal bodies along the joyful of woman.

공연순서 PROGRAM

- 01 사랑가 Sarang-ga(love song)
- 02 쑥대모리 Ssukdaemoeri
- 03 초립동 Choripdong
- 04 입축 lpchum
- 05 무당춤 Mudangchum
- 06 살풀이춤 Salpurichum
- 07 승무 Seungmu(Buddhist monk's dances)
- 08 진도북춤 Jindobukchum(drum dance)



대표 류영수(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수)

연출 김초하(류무용단 회장)

출연 류영수, 이정은, 이채현, 고효영, 홍자연, 주해리, 문지원, 이소녕, 이하늘, 김인숙, 이송희, 양진범, 안세진, 이우영





이번 공연은 "the+미소 흥+흥 콘서트'로 곡마다 이야기를 구성하여 악·가·무 형태의 복합장르가 융화된 창작공연이다. 각 곡에 이야기를 연주자의 연기와 움직임을 통해 전달하며, 기존 12현가야금병창 뿐 아니라, 25현가야금 창작곡, 창작소리(이카펠라 형식), 기악창작곡 등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재해석한 스토리텔링의 창작곡으로 전통음악의 이해를 돕고, 관객들과 소통하는 공연을 준비하였다.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갖고 있는 가야금병창 그룹 '미소'의 다양한 전통음악의 흥과 멋을 보여줌으로써 국악이 생소할 수 있는 외국인이나 일반 관객이 우리 문화에 대한 거리감이 좁혀지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The+Smile, Heung+Heung Music Concert' is a creative music performance, which is organized story by each show mixed with dance, sing and music.

Each of the song will deliver the performer's story by acting and motion of dance. 12-stringed gayageum byeongchang, Newly composed 25-stringed gayageum byeongchang, creative sound(type of a capella),instrumental pieces which reinterpreted traditional music as a story. It will help audience and people to fully understand and communicate through performance. This show gives the audience members an unique opportunity to explore a wide range of repertories in korean classical music, which reinterprets korean traditional music into creative style of storytelling. Especially, It narrow the gap between tradi-

공연순서 PROGRAM

- 01 12현 가아금병창 'Hey jude, Let it be, 복숭아꽃, 남그린희포' 12-stringed gayageum byeongchang 'Hey jude, Let it be, missed the lover'
- 02 25현 가야금병창 창작곡 '흥타령' Newly composed 25-stringed gayageum byeongchang "Heungtaryeong"
- 03 OST 모음곡 Some of OST song
- 04 25현 가야금병창 창작곡 '뽕따러가세, 함앙양잠가' 2 song of newly composed 25-stringed gayageum byeongchang
- 05 생황독주곡 Oblivion The solo performance Oblivion

tional music both foreigners and the public.

- 06 가야금병창 음악극 '화사자' Gayageum byeongchang "Hwasaja"
- 07 성악 창작곡 '똥그랑땡' Newly composed vocal music "Ttonggrangttaeng"
- 08 창작곡 '심청은 억지춘향' Newly composed song 'Simcheong is not a real Chunhyang'



대표 이은희(중요무형문화재 제 23호 가아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출연 이은희, 차보영, 지유정, 박영식, 김민지, 감솔지, 강재훈, 오초롱, 김진선, 대진여자고등학교 가아금부(조수빈, 김시은, 홍수빈, 서숙영, 염윤재, 이연지, 하준만, 이윤미, 박다진, 윤승희, 장세령, 민솔, 황은채, 이가람, 곽민제, 이혜연, 유예림, 박수지)